

'우리들의 재능과 끼 마음껏'

전북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성료 전주상업정보고 '글로우' 팀 금상 수상

제15회 전북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전주비올센터 2층에서 치러졌다.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 연맹이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동아리 간 교류를 통한 친선 도모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재능과 끼가 충만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14개 팀이 참가 스포츠, 합창, 재즈, 방송댄스 등을 선보였다. 경연 결과 금상은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의 '글로우' 팀이 수상했으며 전주제일고등학교 'N·S·P' 팀이 은상, 신일중학교 '체리쉬' 팀이 동상, 더블레이

스무용센터 '박미에댄스컴퍼니' 팀이 인기상을 차지했다. 또한 부안예화무용학원 '투아니에화무용단'과 소울헌터즈댄스아카데미 '올라프레시브렛츠' 팀은 특별상을,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프리즈' 팀과 전라북도체육고등학교 '댄스스포츠' 팀은 한국출라협회이사장상을, 용진중학교 '달리운줄' 팀은 청소년동아리연맹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대회 심사위원장인 손정자 우석대무용학과 교수는 "다양한 곡으로 구성된 안무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작품의 변환 시 음악과 동작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작품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고 조언했다.



제15회 전북도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전주비올센터 2층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승을 차지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의 글로우 팀 리더는 "학교 내 자생동아리라 출출 공간이 마땅히 없어 빈 교실 등을 전전하며 연습해왔는데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하며 "상금은 그동안 애쓰고 있던 멤버들을 위한 화식비에 쓸 것이다"라며 달란 마음을 표했다. /정해은 기자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콘서트 조수미 '라 프리마돈나' 8월2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

1986년 10월26일, 이탈리아 5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트리스테의 베르디 극장은 전율이 휩싸였다. 그 중심에는 자그마한 아시아인이 있었다. 당시 만 23세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소프라노 조수미였다. 아시아인에게서 그런 상상도 못할 고음과 기교가 쏟아지자, 현지 오페라계는 들쭉날쭉 시작했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첫 아시아인 프리마돈나가 탄생한 순간이다. 세계적 지휘자 카리얀은 "신이 내린 목소리", 또 다른 거장 지휘자 주빈 메타는 "100년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라고 극찬했다.

조수미가 이후 세계 5대 오페라극장 주연을 맡는 건 당연해졌다. 아시아인 최초 국제 6개 콩쿠르 석권, 아시아인 최초 황금기러기상(최고의 소프라노), 아시아인 최초 그래미상(클래식부문), 이탈리아인이 아닌 유일한 국제 푸치니상 수상 등 숏한 최초 타이틀이 이어졌다.

조수미가 8월28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국제 오페라 무대 데뷔 30주년을 맞아 자신의 음악을 집대성한 스페셜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를 펼친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의 리사이틀로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콜로라투라(Coloratura)' 레퍼토리로 꾸민다. 특히 세계 유명 음악가들조차 공연이 쉽지 않았던 다이얼 오베르의 오페라 '미궁 레스코' 중 '웃음의 아리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지난 4월 벨기에 '오페라 로얄 드 트레주 발로니아' 무대에서 이미 검증 받은 곡이다. 10월 프랑스 국영방송이 무대를 방송할 예정이다.

또 30년 전 데뷔무대에서 불렀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이여', 비슈 '종달새의 노래', 비발디 '멸시 당한 신부' 등을 들려준다. '가고파' '꽃구름 속에' '새야새야' 등 한국 가곡, 조수미의 히트곡인 '나는 대리석 궁전에서'는 꿈을 꾸었네'도 준비했다. 조수미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네! 그저 놀랍다. 나는 단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돌아보니 30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까지 온 30년 보다 앞으로 나아 갈 30년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 등 중요무대에서 조수미와 함께 연주해온 피아니스트 제프 코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서울 공연 전후로 8월25일 오후 7시30분 충주시문화회관, 26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9월3일 오후 5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도 돈다. SM엔터테인먼트. 1544-1555

/이성주기자

서양의 옛 금속활자로 찍어낸 중세시대 다양한 서적 한눈에

전주 완판본문화관, 내달 1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유물 특별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인쇄혁명을 이끌어냈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로 개인 화가를 고용해 책에 독특한 그림과 문양을 그려 넣었다. 심지어 활자로 찍어내는 책에 그림 그릴 곳을 비워두기도 했다.

이런 500년 전의 이색적인 책을 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된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완판본문화관은 오는 7월 1일 '진보, 갓 인쇄한! 구텐베르크 박물관 유물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는 필사로 만들어진 기록물을 비롯해 활자를 이용한 간행서적들과 학서·기도서·성경 등이 전시된다.

'예배서: 슈트라스부르크', '그라티아누스: 판결집', '페트루스 게르티지: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 개요', '리버누스 마우루스: 거대한 십자가의 찬양' 등의 중세시대 서적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15세기에 사용했던 인쇄기 복제품을 통해 그 시대의 인쇄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1450년경 인쇄공장을 만들어 '구텐베르크 성서'를 출판했으며, 그로인한 인쇄술의 보급은 종교개혁 및 과학혁명의 배경이 되는 등 유럽사회의 큰



대화를 앞당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전시에는 참여한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세계 2대 인쇄박물관 중 하나로 구텐베르크를 기념해 1900년에 건립되었다. 박물관은 15~17세기의 수동 프레스기를 포함한 많은 인쇄 프레스기를 소장하고 있으며 구텐베르크의 작업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완판본문화관(김석란 관장)은 "완판본과 비슷한 시기의 서양 인쇄기술 및 출판문화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관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기간은 7월 1일~8월 21일이며 특별전 기간 동안 휴관 없이 진행된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이며 단체(20인 이상)는 할인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231-2212~3 혹은 홈페이지(<http://www.jjcf.or.kr/main/wan/>)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숲에서'



↑ '함께'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초대전... 이일순의 '쉬어가기'

우진문화재단의 청년작가초대전에는 이일순 작가가 초청되었다.

캔버스에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하여 작업하는 작가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몽환적인 감성을 동시에 품는다. 초현실적 이미지가 가득한 작품에서는 시각적 활력을 위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회화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숲에서
작가에게 숲은 모순의 현실에서 일탈해 잠시 쉬어가며 에너지를 채울 각별한 곳이다.

"달아날 것은 달아내고 모자란 것은 채워서 다시 가쁜한 걸음으로 가야만 이 길이 온전한 나의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에 만난 숲이란 곳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풀어나가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함께
2014년부터 이어진 연작 '함께'는 2012년 '너의 집, 나의 집'이 작품의 모태다.

'너의 집, 나의 집'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 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 이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는 '함께'는 공존과 조화의 세상 속에서 '소통' 하는 와중에 느낀 행복의 기쁨을 무성해진 나무의 아래 하나둘씩 생겨난 이웃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사람살이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을 사람·동물·사물들로 이미지화해 나무에 걸쳐 놓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작품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어느 나무 아래 짐을 내려놓고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발하는 기운을 느낀다. 그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그들의 존재를 전한다. 늘 함께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려웠던 소통의 부재, 여기에서는 귀가 아닌 손끝과 피부로 전해져 흡수되는 신비를 맛보게 된다. 낯선 존재들에게 언어로 말을 걸고 그들의 말을 배워간다."

<작가노트 중에서>

이번 전시회 주제는 '쉬어가기'로 오는 29일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0일>



▷쥐띠

46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른다.
72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대비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운이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운.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큰 걱정은 하지 마라.
73년생: 동기간과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85년생: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고 귀를 기울여라.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물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가급적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으나 큰 심중에 기쁨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말띠

5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격.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른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



▷염소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



▷뱀띠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현재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틀어질 수 있다.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